

# 만화천국에서 사랑받는 당당한 예술공간

## 파리 리탱지역의 만화전문서점 '앨범(Album)'

최연구

《한겨레 21》 파리 통신원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또한 만화의 나라이기도 하다. 만화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사랑은 각별하다. 세계 최대의 만화축제인 '앙굴렘 축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프랑스인 것만 봐도 프랑스 사회에서 만화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올해로 25회째인 앙굴렘 축제는 '만화의 메카'로 불리는 앙굴렘에서 열리는데, 이 도시에는 단순히 만화축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만화단지까지 조성되어 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했었지만, 세계적인 만화가를 만들려면 아마 프랑스의 만화도시 앙굴렘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

### 아티스트로 불리는 프랑스 만화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 예술가는 존경받는 계층이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화가나 조각가 같이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만 아티스트(예술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 연극배우 상송기수처럼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티스트라고 부른다. 만화가 역시 아티스트이다.

프랑스 서점의 만화 코너에는 일본만화(망가)도 적지 않게 꽂혀 있다. 일본 망가는 세계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사실 그 수출의 80% 정도는 프랑스로 수출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프랑스인들이 특별히 일본만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신사문화는 속물문화로, 미국의 할리우드 문화는 저속문화쯤으로 보고 있는 프랑스인들의 눈에 일본문화가 세련된 고급문화로 비칠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만화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프랑스인들이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체국에서 인기만화의 주인공을 배경그림으로 한 만화수표를 발행했다. 수표라면 다소 사무적인 디자인에다가 격식을 갖춘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일대 인식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시도였다. 이 모든 것은 프랑스인들이 만화를 유치한 비속문화가 아니라 당당한 정석문화의 한 갈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화가 이렇게 대중성을 띠고 있으니 만화전문서점도 적지 않다. 그중 파리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서점은 '앨범

프랑스는 '만화의 나라'이기도 하다. 그만큼 만화에 대한 프랑스인의 사랑은 각별하다. 파리 리탱지역에 있는 만화전문서점 '앨범'은 겉에서 보면 그리 화려하지도 않지만 매장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만화천국이다. 만화광에서부터 노인과 점잖은 신사까지 고객도 다양하다.

(Album)서점이다. 이 서점의 명칭 '앨범'은 다름아니라 만화를 일컫는 말이다. 만화는 프랑스어로 '밴드 데시네(Bande Dessinée)'인데 간단하게 줄여서 베데(BD)라고 부른다. 보통 만화집은 하드커버에 A4용지보다 좀 큰 판형으로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이 판형의 그림책이나 화보집을 통칭 앨범이라 하는데 만화 역시 앨범이라고 부른다.

앨범 서점은 파리 5구의 대학가인 카르티에 리탱(리탱지역)의 당트(단테)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매장도 전문화되어 3개의 독립매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만화는 6번지와 8번지의 두 매장에서 취급하고 있고 7번지의 매장에서는 만화 레저 디스크, 만화 비디오 등 영상물을 전문으로 판매한다. 매장 밖에서는 보통 다른 서점처럼 중고나 재고만화를 따로 내놓아 싸게 팔고 있다.

겉에서 보면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장식도 없어 선뜻 눈에 띄지 않지만 매



· 3개의 독립매장으로 운영되는 만화전문서점 '앨범'.



· 각종 만화는 물론 포스터와 마스코트 인형, 열쇠고리 등 기념품도 판매한다.



· 매장 밖에서는 다른 일반 서점처럼 중고 문고판 만화를 내놓아 싸게 판다. 단돈 3프랑.

장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만화천국이다. 서점 벽에 걸려 있는 《탱탱(Tintin)》이나 《아스테릭스(Astérix)》 같은 만화 주인공 포스터가 친근감을 준다. 사실 탱탱이나 아스테릭스, 럭키 룩크 같은 만화를 모른다면 프랑스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다.

만화 《탱탱》은 외국에 가장 널리 알려진 만화인데 사실은 벨기에 만화이다. 벨기에 역시 불어문화권이라 프랑스문화에 동화되어 소개되고 있지만, 1929년에 처음 나온 모험만화 《탱탱》은 70년간 어린이들에게 꿈과

탐험심을 키워온 고전 중의 고전이다. 프랑스에서 '탱탱'의 극성팬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탱탱' 포스터나 소형 모델, 장난감 등을 수집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만화집을 제외하고도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다. 쉽게 구할 수 없는 《탱탱》만화집 50년대판의 경우는 만화 고서 수집가들에 의해 2천프랑(약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만화 《아스테릭스》는 프랑스의 민족만화

# 보는 것만도 즐거운 만화의 길잡이

일본 쇼가쿠칸 출판사 홈페이지

한영주 · 한국만화문화연구소 연구원

쯤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현 프랑스인의 조상인 골민족이 로마인에 대항하여 펼치는 모험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만화로 보는 건국 신화 같은 것이다. 게다가 파리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서기 오래전부터 프랑스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은 '아스테릭스 공원'은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아스테릭스 만화를 주제로 잡고 있다.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키나 도널드보다는 오벨릭스나 아스테릭스 인형을 가지고 논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아스테릭스의 작가 르네 고시니는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뽀티 니콜라'의 한국어판 《꼬마 철학자》의 삽화를 그렸던 만화가이다. 1959년 처음 출간된 후 《아스테릭스》는 약2억5천만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고 하니 만화의 위력에 새삼 놀랄 뿐이다.

## 노인에서 벵타이 맨 신사까지

만화서점 앨범의 주고객층은 만화광 청소년들이지만 노인들이나 벵타이를 단정히 맨 신사들도 자주 눈에 띈다. 모든 프랑스 서점이 그렇듯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만화를 봐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앨범서점은 만화에 호감을 사이에 만남의 장이다보니 마음맞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띈다.

매장은 탐험·코믹물·SF·아동물·성인용 등의 장르로 분류되어 있고 계산대쪽에는 만화주인공의 모습을 담은 열쇠고리·장난감·스티커·포스터·마스콧 인형 등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값이 만만치 않아서 만화 주인공을 넣어 만든 기념품은 청소년들보다는 성인들이 주로 사간다.

프랑스 최대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자본은 경제자본이 아니라 문화자본이라고 역설하며 문화의 구별짓기 이론을 펴고 있다. 만화 하나에도 나름대로의 구별짓기를 통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프랑스 만화는 뭔가 예술적이라는 관념을 심어주는 프랑스인들의 문화관. 이것이 프랑스의 만화와 예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일 것이다. ❖

쇼가쿠칸의 간판격인 '빅 코믹스' 홈페이지는 최근 만화계의 소식과 신간만화 소개를 볼 수 있는 뉴스, 도서관과 만화에 대한 비평과 독자들의 의견을 받는 살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쇼가쿠칸의 '빅 코믹스' 홈페이지.

쇼가쿠칸(小學館)은 슈에이사(集英社), 고단사(講談社)와 더불어 일본의 3대 메이저급 만화출판사로 꼽힌다. 1922년 초등학교용 학습잡지로 시작한 쇼가쿠칸은 현재 유아지에서 성인지까지 약 67종의 잡지를 간행하고, 4600종의 만화책과 4500종의 서적을 출판하며 만화영화, 비디오테이프와 CD-ROM을 판매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쇼가쿠칸의 홈페이지(www.shogakukan.co.jp)는 크게 ▲각 잡지의 홈페이지 소개 ▲서적과 코믹스, 테이프·CD, 추천사이트 ▲게임공략집과 역사책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아기가자하게 꾸며진 초기메뉴는 다소 산만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자신들의 성과물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린이이같은 욕심이 느껴진다. 더구나 곳곳에 배치되어 움직이는 작은 만화그림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귀엽다.

쇼가쿠칸의 간판격인 '빅 코믹스'의 홈페이지(www.bigcomics.shogakukan.co.jp)에는 최근 만화계의 소식과 신간 만화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는 뉴스와 도서관, 만화에 대한 비평과 독자의 의견을 받는 살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의 만화책(單行本) 정리는 이전의 작품까지도 잘 되어 있어, 작품명이나 작가명 등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며, 만화책의 표지와 만화의 전체적인 특징과 줄거리, 목차 등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서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쇼가쿠칸의 검색기능은 다른 출판사에 비해 훨씬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테이프와 CD는 교육용이거나 오락용으로 일반 만화영화, 비디오테이프 등이 목록에 올라 있다. 게임공략집이란 겜보이, 닌텐도, 세가 사탄 등의 회사가 개발한 게임기에 대한 해설집으로, 게임을 설명하고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의 책이다. 원작만화의 인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만들고, 다시 게임기의 인기를 이용하여 게임공략집을 만들어내는 등 하나의 만화에서 끊임없이 상품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추천사이트 항목을 살펴보자. 영어판 만화소개 사이트(www.viz.com)는 출판만화에서부터 비디오·음악·게임기 등에 대한 소개와 판매를 위한 사이트로 일본어 사이트만큼 자세하고 많은 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이밖에 미국과 유럽, 일본의 유명 미술관 사이트와 어린이가 가볼 만한 홈페이지들, 뉴스신문사의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다. 일반 미술관뿐 아니라 만화박물관이 연결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아쉬운

마음을 접는다. 이 글에서는 간략하나마 만화에 관련된 부분만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쇼가쿠칸에서 발행되는 아동용 도서나 사전, 그림책 등에는 양서가 많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들어가 보기를 권한다.

필자에게 인터넷에 대한 관심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인터넷 자체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만화'라는 매체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지 자못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화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조금 설렌다. 이전의 만화와 다른 느낌의 만화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하지만 아직 인터넷 만화의 실험은 미미하고, 이전의 만화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홈페이지들이 새로운 실험보다는 기존 형태의 만화에 대한 홍보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인터넷과 만화에 대한 더 넓은 시야의 확대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